

침묵은 금이요

(발달성 언어 장애)

나이가 들어서도 ‘쌀밥’을 ‘살 밥’이라고 발음하거나 “...하지 못 한다”를 “...하지 못 안다”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한 사람은 복모음이나 중모음의 발음이 정상의 범주를 확연히 벗어나서 누가 들어도 언어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된다.

잘 알다시피 ‘경제’를 ‘갱제’라고 말 한다던가 ‘확실히’를 ‘학시리’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다. 각 지방의 특유한 억양과 사투리는 그럴 수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우리말을 쓰는 우리 국민은 우리말의 표준 발음법에 정해진 대로 발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표준 발음이란 표준어의 실제 발음, 즉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어의 ‘r’ 발음을 본토 발음과 유사하게 낼 재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걸(girl)’을 ‘기르르’나 ‘지르르’로 발음하는 황당함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언어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학령 전기(4-6세)에 시작하여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필수적인 언어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경 정신과를 찾게 되는 아이들은 크게 보아 저능아, 유아 자폐증, 뇌 손상아, 청각 장애아, 그리고 발달성 언어 장애 환자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발달성 언어 장애(發達性 言語 障礙)란 다른 발달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언어의 지연 또는 결핍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발달성 언어 장애에는 첫째, 남이 말하는 것은 알아듣고 이해하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표현 못 하는 표현성 언어 장애, 둘째, 남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자연스럽게 표현의 장애가 뒤따르는 수용성 언어 장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 발음이 장애를 받는 발달성 구음 장애 등이 있다.

표현성 언어 장애(表現性 言語 障礙)란 언어의 이해력은 연령에 적합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구어(spoken language)의 사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경우이다. 이들은 언어 장애에도 불구하고 비언어적인 놀이, 소꿉놀이 등은 거의 완전하게 해낸다. 또 이들은 스스로가 의사소통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정서장애, 행동장애, 과잉 행동 등을 겪을 수도 있다.

수용성 언어 장애(收容性 言語 障礙)란 언어의 이해력이 그의 정신연령의 수준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경우이다. 이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는 대부분 표현성 언어도 장애를 보이며, 발음의 이상도 흔히 나타난다. 이 장애는 최근 미국 정신과 학회의 진단 기준에서는 배제되었다. 그것은 순수한 수용성 언어 장애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발달성 구음 장애(發達性 構音 障礙)란 그 아이의 연령과 지능 상태에 비추어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그 발달이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이 장애는 소리를 잘못 내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한 소리를 다른 소리로 바꾸어 내거나 특정한 소리를 생략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는 흔히 학업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대화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구음 장애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낮은 사회경제 계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이다.

만약 언어 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진다면 언어 치료는 필수적이다. 가능하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때로 발음이 잘 안 되는 어린아이를 보고 ‘대통령 감’이라든가 “침묵은 금”이라고 농담 겸 위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농담은 농담일 뿐이다.

사회가 안정될수록, 나라의 형태가 선진국형이 되어 갈수록 구음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 불리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할뿐이다.